책임기도, 침묵 발뺌기도, 찬양 발뺌기도

(열왕기하 20:12~21)

12.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15.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책임기도, 침묵 발뺌기도, 찬양 발뺌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책임기도, 침묵 발뺌기도, 찬양 발뺌기도'
책임기도와 발뺌기도가 있는데 발뺌 기도에는 침묵 발뺌기도와 찬양 발뺌기도가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 삶의 현장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면 신앙의 생활화는 무척 쉬워집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의 생활화가 일어나야만 실제로 내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이 지속되는 복지의 삶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이 활성화된다면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걱정 근심 불평 원망의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현장의 근원적인 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흑역사와 백역사의 무대입니다.
'흑역사'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가치를 붙잡은 인간들이 그 가치를 손에 넣기 위

해서 추진력을 발동하지만 그 힘도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조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내가 그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흑역사의 섭리를 통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불통해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를 파악하려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흑역사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외의 세상가치를 붙잡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고 믿게 되면 백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악의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섭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백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흑역사와 백역사가 겹쳐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 흑역사를 통하여 형들의 악한 힘의 추진력이 요셉을 팔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끝없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백역사의 현장으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흑역사와 백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무대로 본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주체적인 활동의 공백과 여백이 없어집니다. 단지 흑역사를 살 때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인데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앗수르 왕이 승승장구할 때에 자신이 잘해서 많은 민족과 나라를 정복했다고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승승장구조차도 태초에 행하신 바이고 옛날부터 정하신 바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사실상 삶의 현장에는 실효성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이 발생할 공백과 여백은 없는 것입니다.
요5: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30절에서도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과 지혜가 무한히 탁월하신 분이심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의 성향입니다.
이러한 원죄의 성향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죄의 성향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책임기도입니다.

‘책임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그려내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치유되는 상황을 바라고, 돈 문제가 있으면 돈이 많이 벌리는 해결 상황을 그리며 하나님을 동원하는데 이것이 책임기도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죽은 신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선민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전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기도입니다.
앞서 나온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기도를 요청하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책임기도를 통해 병을 고침 받고 십오 년 수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명 연장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시고 옛날부터 정하신 바로 역사의 흐름에 조금의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림자의 삶에 불과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일영표의 기적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의도적으로 책임기도를 드리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선민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내가 책임을 느끼면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발뺌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발뺌은 책임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백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의 특성이 하나님의 흑역사이자 백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흑역사의 섭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든지, 하나님의 백역사의 사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든지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와 공백은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고 침묵을 통해서 발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판단하려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대면하던 문제의 구도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는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제3자 입장에서 이러한 구도를 보며 하나님 편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내 삶의 형통을 꿈꾸며 묻어두고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편에 서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위해서라면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행되기를 바라셨던 발뺌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뺌기도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백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으시고 역사하심으로서 삶의 성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또 한 번의 발뺌기도가 드려져야만 하는데, 침묵을 통해 이루어진 발뺌기도에서 내가 문제를 대면하던 구도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대면하는 구도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응원하는 제3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문제와 대면하고 있던 상황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와 결실이 생기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 열매와 결실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서 발뺌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열매와 결실로부터도 발뺌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 문제에서 발뺌을 할 때에는 판단을 중지하는 침묵을 통하여 발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역사를 통해서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이루신 삶의 결실과 성과에 대해서는 찬양을 통해서 발뺌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칭찬하며 주목하자 오히려 베드로는 기겁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뺌해야 합니다.

이 경이로운 앉은뱅이의 회복사건에서 우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인데 일어난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발뺌을 했던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완전히 발뺌하여 말합니다.

이 앉은뱅이를 낫게 한 기적의 성과로 인해 만족하거나 기뻐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내가 취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칠십 인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했던 역사를 기뻐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로 기뻐하면 그 다음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

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아닌 성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문제와 대면하시며 내가 제3자로 빠졌던 구도를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침묵하는 발뺌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편을 든 것처럼 성과가 나타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고 십오 년간 수명을 연장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앗수르의 힘에 눌려서 약소국의 속국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바벨론에서 남 유다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문병사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들이 도착할 때에는 히스기야가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들도 문병보다는 반 앗수르 동맹을 확장시키기 위함이 주목적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먼 나라에서 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요청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부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궁 곳간을 열어 보물을 보여주고 군사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는데 100년 뒤 BC605년에 바벨론이 완전한 대제국이 되어서 BC586년에 남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합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역사의 성과물에 대해서 발뺌기도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하기하 18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앞부분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산당까지 제거한 철저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형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 2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히스기야는 예언대로 병에 걸리지만 문제를 끌어안고 면벽하여 책임기도를 하여 십오 년의 수명을 연장 받습니다. 치유가 되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져서 바벨론 사신들의 문병방문이 있고 왕궁 보물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미래의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앗수르의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고 항복하여 막대한 공물을 바치게 되었고, 애굽에 동맹을 요청하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침묵의 발뺌기도

를 드리게 되고 앗수르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그림자 기도인 책임기도, 침묵 발뺌기도, 찬양 발뺌기도에 대한 내용이 연달아 이어지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이 마쳐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 형통을 누렸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병에 걸려 죽을 것을 예언 받았을 때에 아멘! 하고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책임기도를 통해서 수명을 십오 년 연장 받아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을 자랑하였고, 그로인해 남 유다의 멸망과 그 아들들이 잡혀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앗수르의 1차 침공 때에 이사야가 항복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남 유다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좋지 않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이 모두 책임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예언했을 때에, 엘리야나 모세가 그랬듯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나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역사하셨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은 마찬가지였음으로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형통한 끝에 죽음을 예고해 주신 것이므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기를 바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 백역사를 누리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찬양의 발뺌기도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땅의 역사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자 죽기가 싫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등 뒤로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태산같이 다 모아도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인데 그것이 승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물'이란 진심으로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된 히스기야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루신 성과들을 자기의 업적인 냥 도둑질하여 자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사야로부터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가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앗수르에 항복하여 공물을 바치게 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2차 침공이 일어난 후에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에 대하여 침묵해서 발뺌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문제와 대면하는 구도가 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편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앗수르에 짓눌린 남 유다의 상황을 이용하셔서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는 발뺌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앞서 일어난 책임기도의 사건을 뒤로 빼어 발뺌기도를 강조하고, 오늘 본문은 찬양에 대한 발뺌기도를 연이어 이야기하면서 삶에 현장에서 드려져야 할 우리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침묵의 발뺌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찬양의 발뺌기도를 통하여 복지를 완성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삶의 현장에서 책임기도를 피하고 침묵을 통한 발뺌기도로 시작하여, 찬양을 통한 발뺌기도로 복지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